

2008년 7월 7일 메시지

- 해외는 그들이 하게 놔둬야 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돌볼 건 돌보게 해야 합니다. 감각도 잘 모르고 민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. 한국 사람들이 해줄 것이 있습니다.

- 내가 유럽 쪽에 다닐 때 물어봤더니 유럽회원들은 아시아 쪽을 오고 싶어 했습니다. 그런데 아시아 쪽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교류 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. 그러니 자꾸 교류를 하도록 하십시오. 이번 수련회 때 해외 회원들 관리 잘 하고 건강도 잘 챙겨서 관리하게 해주십시오. 먹는 것도 조심시켜서 배탈 나지 않게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. 아주 철통같이 해줘야 합니다.

- 해외 선교도 잘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잘 돌아가야 합니다.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도 관리해야 됩니다. 거기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니 도와주어야 합니다.

- 프랑스도 자꾸 교류해서 한국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. 청중도 몰면서 자꾸 만들어서 해나가야 합니다.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.

-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지막에 가서 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워합니다. 볼 차면 크로스바를 넘어잡니다. 그래서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.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법이 있습니다. 내가 나가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. 내가 나가서 하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만 볼 넘게 넣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하는 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. 코치가 가르쳐주고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. 목회도 이와 같습니다.

- 한명이 개척해서 세계 50개국까지 하는데 크게 해보십시오. 천명, 이천 명, 삼천 명씩 해야 합니다. 기도하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.

- 자꾸 한국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. 이탈리아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. 세계지도를 가지고 와서 한국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다. 대부분 다 자기 나라만 압니다. 다 신경을 안 씁니다. 옆의 사람 신경 안 쓰듯이 다른 나라 신경 안 씁니다. 우리나라는 신앙 밖에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. 다른 것으로는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.

- 내가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캠퍼스가 당시 200개였는데 지금은 300개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. 캠퍼스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.

- 경기도 광주가 시(市)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. 광주가 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시(詩)를 써 냈습니다. 멋있게 써냈습니다. 옛날에 내가 기도한 남한산성이 거기 있습니다. 아주 극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. 그런데 다 없어지고 도시가 되었습니다. 경기도 광주가 도시가 되었습니다. 애들도 금방 크면 도시 만들듯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. 시골을 도시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열심히 잘 해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.

- 자녀들이 부모 건강을 챙겨드려야 합니다. 나를 보십시오. 우리 어머니 건강 계속 살피지 않습니까? 죽어도 기도해서 계속 살립니다. 우리 어머니 일찍 죽을 사람이었습니다. 부모들은 자기 몸을 잘 모릅니다. 불펜심 만 한 게 시작되어서 그것이 커지는 것입니다. 나는 병 들은 게 없습니다. 건강합니다. 밖에서도 뛰고 안에서도 뛰고 하면서 1700리 뛰었습니다. 한국사람 기질이 끝내준다고 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도 공간들이 놀래버렸습니다. 나는 무엇을 해도 전부 다 1등 합니다.